

전역, 사회로 나아가는 성공의 길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창업지원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전직지원금 지원,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변화관리, 특강, 창업워크숍 등

직업훈련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사이버 교육
자격증 취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멘토링 상담
성공 제대군인 멘토 온·오프라인
실전 경험 전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vnet.go.kr) 회원가입 필수



www.vnet.go.kr

군인친구
1666-9279
전국 10개 센터 대표번호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 10, 915호
(후평동, 춘천B&I지식산업센터)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리:스펙 제대군인 2025 April Vol.230

리:스펙 제대군인

2025 April Vol.230

Re play

BEST Mechanic에서
BEST Farmer로!

Re connect

중장년층,
새로운 시작을 향한 도전

Re new

MWC 2025로 읽는
IT 3가지 포커스

최승우
예비역 공군 준위



Contents



리:스펙 제대군인

2025 April Vol.230



04

Re play

- 04 **리마인드**
내가 감동하는 순간은 []이다
- 06 **지금 우리는**
정밀 의료 비늘 제조의 혁신을 이끌다
커스텀튜브매뉴팩처링(유)
- 10 **인사이드 스토리**
BEST Mechanic에서 BEST Farmer로!
최승우 예비역 공군 준위
- 14 **위대한 전환**
서백마을에는 자발농기계센터가 있다
유덕순(제대군인 가족)

Re connect

- 18 **커리어 맵**
진로 탐색부터 취업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
모바일 잡케어 서비스
- 20 **스페셜 리스트**
중장년층, 새로운 시작을 향한 도전
- 24 **금빛 상담소**
제대 후, 소통의 벽을 넘어서는 법
김선희 작가
- 26 **지식 산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속 보훈 역사 이야기
제45회 4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28 **미디어 로그**
기업과 인재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
헤드헌터와 서치핌

Re new

- 32 **전문가 칼럼**
MWC 2025로 읽는 IT 3가지 포커스
이임복 작가
- 34 **뜻있는 여정**
광복 80주년, 경포호에서 만난 독립의 숨결과 역사
- 38 **센터는 지금**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 42 **독자 광장**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책

통권 230호

발행일 2025년 4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강정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www.facebook.com/mpvakorea



www.youtube.com/user/mpvakorea



www.instagram.com/bohun_story



x.com/hun2day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TM

Custom Tube Manufacturing

Div n of
SPECTRA
NG EDGE MEDICAL



정밀 의료 바늘 제조의 혁신을 이끌다
커스텀튜브매뉴팩처링(유)
글 박선경 사진 권진혁



글로벌 의료용 특수 바늘 제조 강자로 도약

미국 매사추세츠주 월딩턴에 본사를 둔 커스텀튜브매뉴팩처링(CTM)은 2002년 경기도 양주, 2013년 경기도 화성에 제조시설을 세우며 글로벌 생산의 전초 기지를 마련했다. 현재 전 세계 직원 300여 명 중 200명이 한국에서 근무하며, 통증 관리 및 신경 절제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 바늘, 종양 치료용 Huber 바늘, 생검 바늘, 척수 및 말초 신경 시술에 필요한 자극 바늘, 경막외 및 척추 바늘 등 30여 개 품목 1,50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조된 제품은 전량 미국 본사로 보내져 북미, 중남미, 유럽 등 글로벌 기업에 공급된다.

의료용 특수 바늘은 정밀성과 안전성이 핵심인 산업이다. 커스텀튜브매뉴팩처링(유)은 OEM 방식으로 맞춤형 정밀 시술용 바늘을 생산하며, 세계 최대 의료용 특수 바늘 제조업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월딩턴에 본사를 두고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성장하며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기업을 만나보자.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5~20% 성장을 기록했다. 연평균 7,500~8,000만 개의 제품을 생산하며, 세계 최대 의료용 특수 바늘 제조업체로 자리 잡았다. 2025년에는 생산량 1억 개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자리하고 있다. 커스텀튜브매뉴팩처링은 8년 전인 2017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며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이후에도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통과하며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차별화된 품질 관리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커스텀튜브매뉴팩처링의 경쟁력은 단순한 의료기기 제조를 넘어, 임상적 중요성이 높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데 있다. 완제품이 아닌 의료기기의 필수 부품을 생산하며, 통증 관리 및 신경 시술과 같은 정밀 의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품질 보증(QA, Quality Assurance)과 품질 관리(QM, Quality Management)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강점이다. 대부분의 제조 공장은 품질 관리(QC, Quality Control) 부서만 운영하지만, 커스텀튜브매뉴팩처링은 QA와 QM 부서를 별도로 두어 품질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정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품질 보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영국의 정밀 가공 기업 엑스엘피티(XLPT)를 인수하며 기술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용 특수 바늘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수술용 칼과 맞춤형 의료기기 부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급 스테인리스강을 수축 및 가공하는 정밀 기술을 바탕으로 호닝(Honing), 마킹(Marking) 등 최첨단 가공 기술을 접목해 의료기기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리브랜딩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커스텀튜브매뉴팩처링은 2025년 1월 기존의 스펙트라 메디컬 디바이시스(Spectra Medical Devices, 이하 '스펙트라')와 XL 프리시전 테크놀로지스(XL Precision Technologies, 이하 'XLPT')를 합병하고, 회사 브랜드명을 엘리베리스 메디컬 디바이시스(Elevaris Medical Devices)로 정한 것을 발판으로 정

밀 의료 기기 개발 및 제조 역량의 새로운 시대를 열 계획이다. 의료용 특수 바늘과 수술용 칼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과 기술력이 핵심이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커스텀튜브매뉴팩처링의 목표는 단순한 의료기기 제조를 넘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 혁신을 이어가고 있으며,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가족친화기업 인증,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등으로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태항 대표는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최고 품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징검다리 역할은 물론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시장에서 단순한 제조업체를 넘어, 혁신적인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커스텀튜브매뉴팩처링의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I N T E R V I E W

제대군인과 함께 성장하는 커스텀튜브매뉴팩처링(유)

“제대군인의 강점은 분명, 제대군인과 함께 성장할 것”

우리 회사는 창업 이후 다양한 인재를 채용해 왔습니다. 제대군인을 직원으로 맞이하게 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당시 55세가 넘는 원사 출신 한 분이 생산직에 지원했고,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젊은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2019년에는 중사 출신의 또 다른 분이 같은 생산직에 합류했고, 현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대군인의 강점이 더욱 분명해졌고, 2023년에는 관리직 채용 시에도 자연스럽게 제대군인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뛰어난 근무 태도와 높은 책임감을 직접 경험하면서, 제대군인 채용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꾸준한 인력 채용이 필요한 만큼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구인 채널을 확대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을 인증받고, 신뢰와 협업이 조화를 이루는 회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백용재
인사부장

“철저한 준비가 전역 후 확실한 성공의 열쇠”

2001년 공군에 입대해 10년간 대북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군 복무 중 실장님의 배려로 휴학했던 대학교에 복학해 졸업을 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미 합동근무를 다년간 하여 외국 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많이 해소되었으며 그 경험들이 전역 후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커스텀튜브매뉴팩처링에 입사해 구매/기획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담당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야지만, 적성에 잘 맞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역 전 대학을 다닌 것이 저에게는 준비라면 준비 과정이었는데, 앞으로 전역을 앞둔 분들은 사회에 나와서 준비하기보다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토익(TOEIC)이나 텡스(TEPS) 등 외국어 실력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갖춰야 실전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 두기를 권합니다.



전호혁
구매/기획 부서장

“군 경험을 발판 삼아 새로운 길을 열다”

2000년 2월 육군 차량정비병으로 입대해 131야전포병에서 5년 7개월간 복무했습니다. 장기 복무가 불가능해 전역 후 재입대를 준비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직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생계를 위해 광장시장의 원단 도매업에 뛰어들었지만, 일보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여러 곳에 입사 지원을 했고, 운 좋게 2019년 커스텀튜브매뉴팩처링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생산부에서 호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 환경과 복지에 100% 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차량 및 화포 정비를 했던 경험 덕분에 설비 기계의 이상징후를 빠르게 감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어 회사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보람됩니다. 앞으로도 맡은 업무에서 인정받으며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동구
생산부 호닝 담당



BEST Mechanic에서
BEST Farmer로!

전투기 정비사,
스마트팜 농업인으로
날아오르다

최승우
예비역 공군 준위

파일럿을 꿈꾸던 소년, 평생을 전투기 정비사로 살 줄 알았던 군인. 그러나 전역 후 그를 사로잡은 것은 최첨단 기계가 아닌, 자연의 색을 머금은 파프리카였다. 33년간 군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스마트팜 농업에 도전한 최승우 예비역 공군 준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박선경 사진 권진혁

33년간 최고의 정비사로 활약한 군인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에서 3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난 그는 농사일에 헌신하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 편하게 살길 원했고, 그는 그 뜻을 따라 열심히 공부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항공기 정비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다행히 국가에서 공부며 기숙까지 해결해 주는 대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현 항공과학교등학교)에 입학하며 꿈에 한 발 더 다가갔다.

1983년 졸업과 동시에 공군 전투기 정비부서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다. 군 생활은 아버지의 희망대로 손에 흠은 묻히지 않았지만, 흠 대신 기름을 묻히는 일이라 편하기만 한 일은 아니었다. 파일럿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 이기에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는 '최고의 정비사가 되자'는 목표를 세우고, 기본적인 일부터 철저히 실천하는 BEST(Basic, Easy, Small, Today) 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그 결과 8전투비행단, 19전투비행단, 10전투비행단 등 33년간 군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며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고, 2015년 준위로 전역했다.



아내와 파프리카, 그리고 새로운 길

1987년 결혼 후 강원도 원주에 터를 잡은 그는 세 자녀를 키우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그러던 중 아내 이수정 씨는 3남 매가 어느 정도 자라자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아내가 선택한 곳은 원주 신림면 황둔에 위치한 파프리카 농장의 사무직이었다. 매일 새벽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아내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컸지만, 아내의 열정은 18년 동안 이어졌다. 오히려 "농사일이 재미있다"며 기쁨을 찾았다.

2015년 전역 후 꿈꾸던 귀촌 생활을 위해 황둔 농장 근처에 집을 지었다. 설계는 운 좋게도 유명 연예인의 집을 건축한 친구가 맡았다.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귀촌 생활이 시작됐다. 아내가 농장으로 출근하면 그는 이웃들과 소통하며 마을 경조사를 챙기고 자원봉사에 나섰다. 담배꽂초가 즐비한 골목을 아침마다 쓸었고, 술선수범하는 그의 모습에 동장이 '클리닉상' 후보로 추천하여 상도 받았다. 마을 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귀촌에서 귀농으로, 파프리카 농장주로

평온한 귀촌 생활을 꿈꾸던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아내가 다니던 농장의 사장이 고령으로 운영을 축소하려 하자, 아내가 “우리가 농장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내의 열정과 설득에 결국 마음을 바꿨다.

그렇게 3,000평의 파프리카 농장을 인수했다. 하지만 농사의 현실은 혹독했다. 한겨울 영하 21도, 온실 내부 온도를 20도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와 아내는 매시간 온도를 체크하며 밤을 지새웠다. 모터 고장으로 보온 커튼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긴급 수리를 불러야 했고, 매출이 안정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도 컸다.

하지만 그는 군에서 배운 ‘BEST 정신’을 되새겼다. 모터 수리를 전문가에게 배우며 직접 정비에 나섰다, 거래처와 신뢰를 쌓아 자금을 융통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스마트 농업 전문가로 성장하다

농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는 공부를 결심했다. 아내가 먼저 다니던 강원대학교 스마트팜 농산업학과 후배로 입학해 졸업했다.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진학 시 학비 50%가 지원된 덕분에 부담은 덜었지만, 늦은 나이에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때 그는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도 밤에 혼자 공부를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다. 덕분에 스마트팜 기술을 익히며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특히 작물의 뿌리가 튼튼해야 건강한 수확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면서, ‘자가 육묘’에 주목했고, 마침내 이뤄냈다. 부부의 노력은 더 큰 결실로 이어졌다. 황둔 농협을 시작으로 지역 농협, 학교 급식, 원주 로컬푸드센터, 군부대, 농협마트(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했고, 2016년부터 일본 수출도 시작했다. 2024년에는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강원더몰에 입점했다. 그 결과 4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연간 150톤을 수확, 연매출 5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원주를 대표하는 파프리카 농장으로 자리 잡았고, 2023년 ‘강소농 파프리카 명인’으로 선정되었다. 2024년 강원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농식품 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내 굴지의 종묘 회사 테스트베드 농장으로 선정돼 신품종을 심고 수확량을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



제대군인을 위한 멘토, 그리고 새로운 꿈

그는 지난해 강원서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 멘토’로 위촉됐다. 스마트팜 전문가로서 예비 귀농인들과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스스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6차 산업 인증 절차도 진행 중이다. 체험농장을 운영하며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수확 체험과 수확물을 이용해 주스, 와플, 피자 등을 만들어 보며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포토존에서 인생샷까지 남길 수 있는 농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파프리카 고춧가루를 개발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만드는 것도 목표 중 하나다.

체험농장을 찾은 학생들에게 전역 후 노력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저씨, 짱!”이라며 반짝이는 눈빛을 보내오는데, 그럴 때면 평생 학습의 필요성과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지금이 참으로 행복하다. 그리고 웃으며 덧붙인다. “이제는 아내보다 내가 더 파프리카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전투기를 정비하던 군인이 이제는 파프리카를 키우며 새로운 하늘을 그리고 있다. 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찬 그의 이야기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군에서는 하늘을, 농장에서는 미래를 가꾸는 그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최승우 예비역 공군 준위의 성공 법칙

1

Best 정신을 실천하라
기본부터,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야 군에서나 사회에서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미리 고민하고 경험하라
취업이든 창업이든 무엇을 할지 충분히 고민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으세요.

서백마을에는 자발농기계센터가 있다

2024년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수기 공모전 장려상

유덕순
제대군인 가족
(예비역 공군 원사 강석권)

아침부터 남편 휴대폰이 요란하다.
“강 사장! 빨리 좀 와야 쓰셨네!”
“강 사장! 여기 대방인데 갑자기 시동이 안 더. 얼릉 와!”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남편을 찾는 소리로 난리가 났다. 남편은 아직 잠에서 깨지도 못하고 전화를 받았다. 휴대폰을 어깨로 받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아침도 못 먹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슬이 맺혀 있는 논 가장자리를 낚은 트랙이 힘차게 달려갔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풍경이다.

3년의 수련, 그리고 농기계센터 오픈

2020년 말에 제대한 남편과 나는 시부모님이 사시던 고향으로 들어왔다. 제대하기 전부터 준비해 왔던 농기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은 제대하기 1년 전에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읍에 있는 농기계센터에 취직했다. 제대로 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 시간제 아르바이트였다. 농기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남편을 직원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 기계 밑에 들어가면 자기들까지 쉬지도 못하게 한 다며 핀잔을 주었다. 연금 자랑하러 나왔냐며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농기계센터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계를 고치러 오는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그 나이에 이걸 어따 써먹으려고 배운디야.”
“가만히 연금이나 받고 살지. 사서 고생을 하네.”

사람들은 남편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고는 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과하다며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35년을 간부로 있던 남편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군에 있던 모든 지위와 경력을 버렸다. 마당을 쓰는 허드렛일부터 잔심부름까지 묵묵히 해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공구를 닦고 현장으로 달려갈 채비를 해 놓았다.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직원들의 손발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직원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남편이 언제까지 다니나 두고 보자는 심산이었다.

남편은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군에 근무하던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했다. 때로는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으며 일을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힘들어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만두라고 했지만, 남편은 시작했으니 끝까지 배우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물어보지 않아도 기계를 고치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주었다. 농기계의 종류는 엄청 많았다. 남편이 다루어보지 못한 기계가 들어오면 옆에 세우고 조목조목 짚어가며 알려주었다. 남편의 성실함을 알아주는 거 같아 무척 기뻐했다. 남편도 군에 있을 때 특기인 전기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기계에 대한 흥미와 남다른 눈썰미가 있던 남편은 직보 기간을 포함해 3년 가까이 열심히 배우고 모르는 것은 스스로 알아나갔다.

재작년, 남편은 미리 사두었던 땅에 농기계센터를 지었다. 그리 넓지는 않지만 커다란 트랙터 한 대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었다. 서백마을 자발농기계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기계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운영비는커녕 남편 인건비도 안 나올 거라며 걱정을 해주었다. 남편도 처음에는 농기계를 고치러 오는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

남편은 농기계센터를 개업하기 전, 동네 사람들의 기계를 틈나는 대로 봐주고 망가진 물건을 잘 고쳐주어 손재주가 있다고 소문이 났었다. 덕분에 농기계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기계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멀리 읍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집 옆에서 고쳐주니 작은 기계들을 수시로 들고 왔다. 하지만 간단한 농기계는 들고 오는데 정작 트랙터나 관리기, 이앙기 등 큰 농기계는 읍에 있는 대형 농기계센터로 신고 갔다.

두 달 동안 문을 열고 대형 농기계를 수리한 건 지인이 가지고 온 트랙터가 전부였다. 트랙터를 살펴본 남편은 오후에 바로 고쳐서 지인의 집에 가져다주었다. 지인은 빨리 수리를 해주고 배달비도 안 받는 남편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해했다. 그 뒤로 며칠 있다가 다른 분이 트랙터 수리를 맡겼다. 먼저 고쳤던 지인이 소개해 준 것이었다. 남편은 감사한 마음으로 역시나 배달비를 받지 않았다.

남편은 읍에 있는 대형 농기계센터보다 공임도 적게 받았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 공임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돌아가신 시부모님 생각에 어르신들의 기계는 공짜로 고쳐주기도 했다. 남편은 수리할 농기계를 체크하고 나면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품이며 가격 등을 알려주고 주인이 허락하면 그때부터 수리에 들어갔다. 아직 쓸 만한 비싼 부품을 무턱대고 교체하지 않았다.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수리를 해주

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도 남편의 진심을 알아주었다. 농기계센터가 문을 연 지 6개월 정도 지나자 소문이 퍼지고 손님이 점차 늘어났다.

손톱에 긴 빠지지 않는 새까만 기름때

농기계 수리는 한창 비뿔 때가 정해져 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트랙터로 논밭을 갈고 농사지를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 트랙터 수리가 많았다. 모내기 철에는 이앙기를 수리하고 타작할 때는 콤바인을 고치러 논밭에 출장 가는 일이 허다했다. 두령을 만드는 관리기 수리도 만만치 않았다. 어떤 날은 12시까지 수리를 해도 다 마무리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손님이 늘어난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다. 농사일이 바쁜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말긴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해주냐며 타박을 하기도 했다. 차례대로 해주는데 빨리해 달라고 수시로 달려왔다.

한 번은 수리해 간 지 하루 지난 관리기가 안 된다고 해서 출장을 간 적이 있다. 주인은 오래된 기름을 잘못 부어놓고 시동이 안 되게 해놨다고 동네가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난리를 쳤다. 이리저리 손을 보던 남편이 기름을 다 빼내고, 가져간 새 기름을 넣어 시동을 걸자 바로 되었다. 남편은 오래된 기름은 사용하지 말라고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었다. 그제야 주인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한 번은 트랙터를 수리해 간 손님이 밭에서 갑자기 시동이 안 된다며 센터로 달려온 일이 있었다.

“이게 뭐여? 새로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기계를 이리 망가 뜨려 놔!”

80살이 넘는 어르신은 남편에게 삿대질하며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다른 손님이 있는데도 야랑긱하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는 내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였다. 내가 자리에 앉기를 권해도 씩씩거리면서 욕을 해댔다.

“실력도 없으면서 덜컥 가게만 차리면 대수어!”





그 말을 듣는 내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했다. 남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수리비 물려주고 손님을 쫓아버리고 싶었다.

남편은 예초기를 고치던 손을 멈추고 어르신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어르신은 어제 수리를 해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며 물어내라고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예초기 수리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르신과 밭으로 달려갔다. 한참이 지난 뒤 남편이 돌아왔다.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껄껄 웃었다. 새로 산 트랙터의 작동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었다. 나도, 예초기 수리하러 온 손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피식 웃고 말았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실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더했다. 그럴 때면 남편은 농기계센터를 괜히 시작했나 하는 후회를 하기도 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돈을 많이 벌자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다. 남편이 기계 다루는 걸 좋아했고 읍에까지 가려면 너무 멀기에 마을에 농기계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무엇보다 농사를 지으시며 농기계 고장 날 때마다 읍으로 가져가시던 시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기계를 수리하는 일보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논밭에서 뒹구는 기계를 만지다 보니 흙과 기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끔 트랙터 밑에 누워서 수리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안쓰러웠다. 얼굴에는 온통 기름칠이고 작업복은 흙으로 범벅이었다. 머리에도 흙먼지를 뒤집어써서 허영계 염색되어 있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남편 손톱에 낀 까만 기름때는 빠지지 않았다. 남편은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면 기름때를 없애려고 손톱을 바짝 깎았다. 그러다 보니 손톱이 자꾸 줄어들었다. 줄어드는 손톱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대형 기계를 다루는 일이라 옆에서 지켜보는 나는 마음만 아플 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했다.

작년 이맘때 수리를 맡긴 경운기를 트랙에 신고 배달을 해준 적이 있다. 남편은 트랙과 바닥 사이에 두꺼운 철판으로 다리를 만들어 경운기를 조심스럽게 내렸다. 그런데 갑자기 굉! 소리가 나더니 경운기가 옆으로 기울어졌다. 남편과 경운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남편의 한쪽 다리가 경운기에 깔렸다. 내가 경운기를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남편과 힘을 합쳐 겨우 들어 올려 다리를 빼내었다. 남편의 바지는 찢겨 있고 허벅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팔꿈치에서도 피가 났다. 너무 무섭고 덜덜 떨렸다. 돌아오는 길에 보건소에 들러 치료를 받았다. 상처가 깊지 않아 천만다행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 무릎과 발등에도 멍이 시커멓게 들어있었다. 너무 속이 상해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 남

편은 농기계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만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며 괜찮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하고 무섭다. 그날 경운기를 어떻게 주인에게 돌려주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마을 사랑방 자발농기계센터

농기계센터를 운영한 지 2년이 되어 간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다.

“강 사장! 나여. 바게스 하나 놓고 가. 복숭아가 참 맛나더라고요”

아직 아침도 안 먹었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렸다. 읍에 가는 길에 먹어보라고 센터 앞에다 복숭아를 두고 간다는 전화였다.

때로는 농기계를 싸게 잘 고쳐주었다며 사과를 한 광주리가 쳐오는 손님도 있다. 좋은 거 못 주고 못난이 사과를 줘서 미안하다며 웃고 간다. 봄철이 되면 지나가다 들렀다며 고로쇠물을 한 통 가득 가져오기도 하고 더운데 고생한다며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는 손님도 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옥수수를 몰래 놓고 가는 어르신도 있다. 자발농기계센터 커피가 먹고 싶다며 놀러 오는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하고 시원한 커피를 드리기도 한다.

논밭으로 출장을 가면 점심을 먹고 가라며 된장찌개에 푹 푹만 내놓는 어르신도 있다. 없는 반찬이라며 미안해하는 모

습을 보면 돌아가신 시부모님 생각이 날 때도 많다.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껏 표현해 주는 동네 분들이 감사하고 소중한다. 자발농기계센터는 작은 시골 마을에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주는 동네에 없어서는 안 될 소통과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농기계 수리하는 일은 힘들고 고되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편은 힘닿는 데까지는 하고 싶다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즐겁게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나도 흐뭇하다. 나이가 들어가지만,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즐거운 마음이 있어 행복하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 남편이 멋지고 자랑스럽다.

“강 사장! 여기 신주골이여. 언능 와!”

트랙터를 잘못 작동했던 임씨 할아버지다. 자발농기계센터 최고의 고객이 되었다.

“네! 지금 바로 가요.”

남편은 오늘도 무거운 공구 가방을 들고 짙짙한 햇볕이 내리 쬐는 밭으로 달려갔다. 햇빛에 반짝이는 낫은 트랙은 털털거리며 뽕뽕 달려간다. ☎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로 탐색부터 취업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

모바일 잡케어 서비스

서비스 대상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직업 선택, 경력 개발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 방법

- ① '고용24' 앱 다운로드
또는 '고용24(work24.go.kr)' 웹사이트 접속
- ② 마이페이지에서 '잡케어' 메뉴 선택
- ③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④ 직업 설계서 작성

잡케어 서비스 주요 기능

기능	설명	제공 정보
직업 설계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사항으로 만들기 • 프로필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직무 역량 분석 • 맞춤형 일자리 추천 • 직업 훈련 및 자격증 추천
취업 시장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별 통계 제공 • 전공·연령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별 요구 자격증 • 선호 전공 정보 • 연령별 재직자 비율 • 임금 정보 및 증감률
추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일자리 추천 • 직업훈련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관련 일자리 •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훈련 정보

모바일 잡케어 서비스란?

PC를 통해 이용하던 잡케어 서비스를 휴대전화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잡케어(Job Care)'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이다. 전공, 자격증, 직업 등 나의 관심사항을 자유롭게 입력하면, 잡케어가 입력된 키워드와 연관된 직업을 추천해 주고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TIP

이런 분이라면 더욱 추천!

- 원하는 직무에서 나의 수준을 파악하고 싶다.
- 희망 직종의 시장 정보를 알고 싶다.
- 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정보를 얻고 싶다.



'직업 설계서 만들기'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관심사항으로 간편하게 만드는 '관심사항으로 만들기'와 프로필 정보를 기반으로 만드는 '프로필로 만들기'로, 필요와 목적에 맞게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직업 설계서 만들기

① 직업 설계서 메인

직업 설계서를 통해 내가 보유한 직무능력을 파악하고 경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직무 역량

선택 직종의 필요 직무 역량과 자신이 보유한 직무 역량의 비교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 개인의 직무 역량과 잡케어 추천 직업의 연관성을 그래프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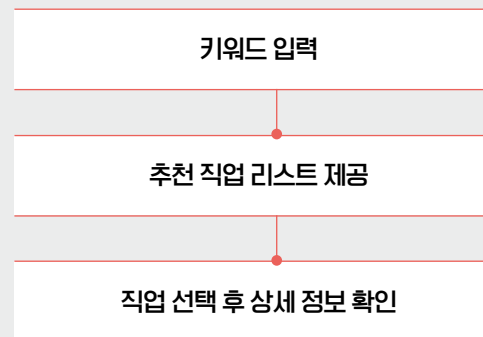
③ 취업 시장 정보

선택 직종에 필요한 자격증 정보와 직업훈련 및 취업 현황 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선택 직종의 학력 요구 분포, 전공 요구 분포, 취업자 연령 분포 등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④ 추천 정보(일자리)

선택 직종과 관련된 워크넷 일자리(구인공고)와 워크넷 인공지능(AI) 추천 일자리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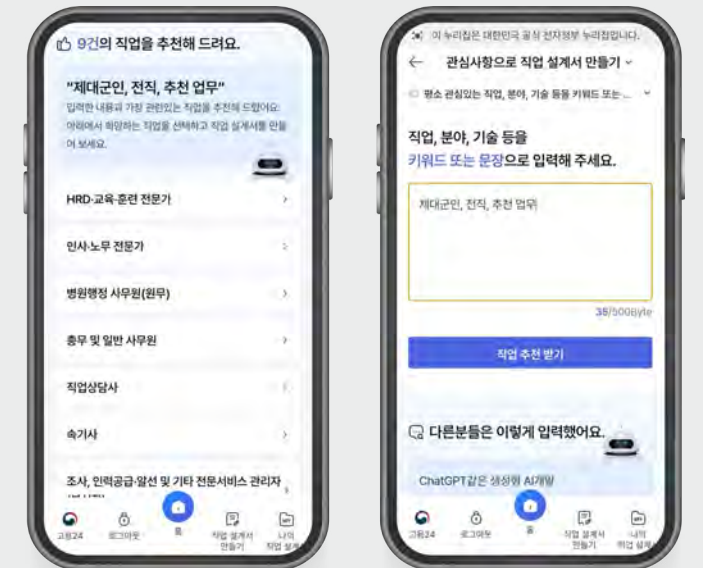
직업 설계서 이용 예시



예시 키워드

'제대군인, 전직, 추천 업무' 입력 시 추천 직업

- ✓ HRD·교육·훈련 전문가
- ✓ 인사·노무 전문가
- ✓ 병원행정 사무원(원무)
- ✓ 직업상담사, 속기사
- ✓ 인력공급·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부서장)
- ✓ 총무 사무원 및 대학 행정조교
- ✓ 기타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원 등



'HRD·교육·훈련 전문가' 선택 시

- 채용 공고: 890건
- 경쟁 지원자: 332명
- 주요 요구 자격증: 직업상담사 2급
- 주요 요구 전공: 교육학



중장년층, 새로운 시작을 향한 도전

2025년 취업시장 현황과 분위기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전년 대비 0.1%p 오른 63.7%로 집계됐다. 2월 취업자 수는 2,817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6천 명 증가했다.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34만 2천 명)과 30대(11만 6천 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대(-22만 8천 명), 40대(-7만 8천 명), 50대(-8천 명)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34만 9천 명→40만 1천 명)에서 증가했으나, 건설업(-16만 9천 명→-16만 7천 명), 제조업(-5만 6천 명→-7만 4천 명), 농림어업(-7천 명→-1만 9천 명)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눈에 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 명 증가했으나, 외국인 근로자 증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1만 8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수출 증가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요소이지만, 해외 직접 생산 증가 및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년 취업 현황 및 성공 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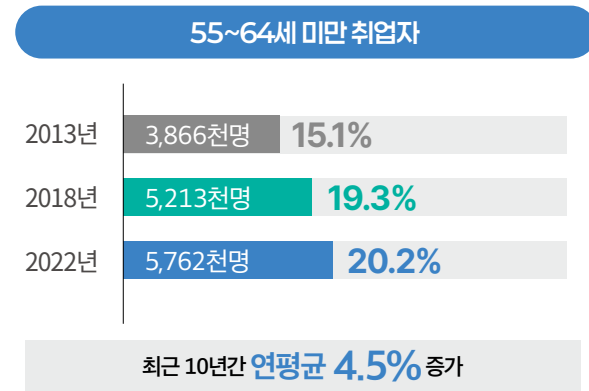
재취업한 중장년층의 상당수가 임금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퇴직 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37.3%의 임금 하락을 겪었으며, 일부는 60% 이상 급여가 줄어든 경우도 26.2%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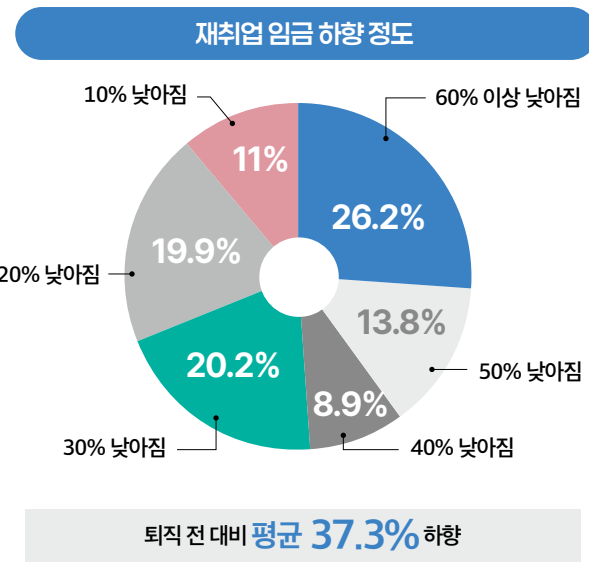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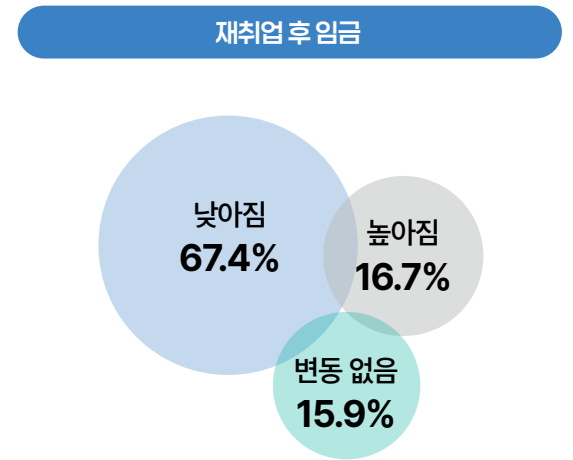
글 편집실

2025년,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 취업시장도 여전히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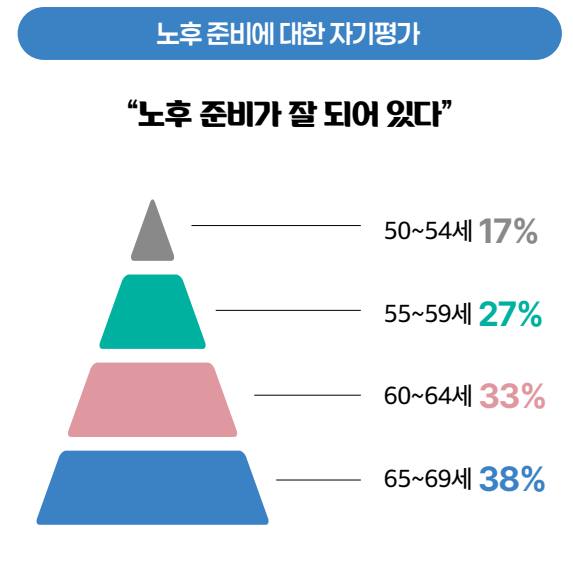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 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고용률이 하락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취업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출처: 한경협중장년내일센터 구직활동 실태조사>



<출처: 하나금융연구소(2024)>

한국경제인협회 중장년내일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장년층이 희망하는 퇴직 연령은 평균 68.9세였으나, 실제 퇴직 연령은 50.5세로 조사됐다. 이는 법적 정년(60세)보다 약 10년 빠르고, 희망 퇴직 연령보다 18년 이른 시점에 직장을 떠나는 셈이다.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하는 비율은 66.8%로 절반을 훌쩍 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기업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나이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들은 중장년층의 직무 적응력, 문제 해결 능력, 임기응변 능력 등을 강점으로 평가했지만, 체력 문제 및 디지털 역량 부족을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2025년 신설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올해부터 정부는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의 일자리 경력 쌓기를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50대 중장년층이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경력을 쌓아 재취업하길 희망하는 경우 경력전환형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선 올해 910명 규모로 시범 추진되는데, 지원 대상은 퇴직 후 경력 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 훈련을 이수한 50대 이상 중장년이다. 기간은 1~3개월이며 중장년은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기업은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의 운영 지원금을 각각 지원받는다. 3월 4일부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의 6개 고용센터와 중장년 내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중장년과 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

참여자: 퇴직 후 경력 전환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대 이상 중장년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기업

※ 단,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5인 이상 기업도 가능

지원 내용

참여자: 참여 수당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 수당 월 최대 40만 원 지급

프로그램 내용

실무수행(1~3개월): 전기, 소방,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숙련이 필요한 분야

직무교육: 소양 및 마인드셋, 디지털, 직무심화교육 등

멘토링: 전문컨설턴트의 밀착 상담, 취업 지원

중장년 취업과 교육,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

중장년내일센터(work24.go.kr)

중장년내일센터는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및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생애경력설계, 전직지원 프로그램, 1:1 맞춤형 상담, 취업 알선 등이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구직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한다.

e-중장년 홈페이지(www.elifepan.or.kr)

e-중장년은 2022년 7월 개설되어 전직지원프로그램, 신중년 재직자/구직자 생애경력설계, 생산직/서비스직 생애경력설계, 신중년 직무 사례 등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노사발전재단은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경력설계, 이·전직 및 재취업,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재취업을 도모한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 혹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내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퇴직공무원 인력뱅크(www.geps.or.kr)

공무원연금공단이 우수한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국가인적 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로, 워크넷과 연계해 퇴직공무원을 위한 일자리 정보 및 일대일 맞춤형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성공적인 중장년층 취업 전략

① 디지털 역량 강화

인사 담당자들은 중장년 구직자에게 고도의 프로그래밍 실력보다는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를 위해 IT 교육, 직무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경력 재구성 및 강점 재발견

자신의 경력을 새로운 직무에 맞게 재해석하고 강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군 경력자라면 조직 관리, 위기 대응, 의사 결정 역량 등을 민간 기업의 요구에 맞춰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③ 네트워킹과 인맥 활용

퇴직자 모임, 업계 세미나, 동문회 등에 참여하고, 온라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④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정부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중장년 새출발 카드',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층을 위한 유망 직종

① 헬스케어 및 돌봄 산업

고령화로 인해 헬스케어 및 돌봄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병원 코디네이터, 요양보호사, 재활 트레이너 등은 중장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다. 특히 공감 능력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나 보호자와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중장년층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② 교육 및 멘토링 분야

중장년층은 과거의 경력을 활용하여 교육과 멘토링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기술 중심 기업에서의 멘토링은 중장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③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다양한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장년층에게 유망한 직종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들은 경영 전략, 인사 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한다.

④ 사회서비스 및 공공 분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도 확대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건강관리사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전망이다.

제대 후, 소통의 벽을 넘어서는 법

글 김선희 작가



Q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과, 사회에서는 직장 동료나 선후배들과 소통하는 것이 힘듭니다. 점점 소외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잘 전달하고 순조롭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A 소통은 기술입니다. 연습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회로 복귀한 제대군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특히, 가정과 직장에서의 소통 방식은 군에서 익숙했던 명확한 지휘체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과의 정서적 교류가 중요하고, 직장에서는 협력과 유연한 대화가 필수적이죠. 소통이 어려울 때는 방법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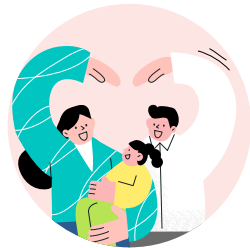
1. 가정에서의 소통: 아이와 배우자와 연결되기



경청의 힘: '듣기'가 소통의 절반

군에서는 명확한 보고체계가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와 배우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TIP. 아이가 이야기할 때는 눈을 맞추고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배우자가 말할 때는 “그러니까 당신 말은 ~ 라는 뜻이지?”라고 요약해 주면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

군에서는 논리적이고 간결한 보고가 중심이었다면, 가정에서는 감정의 공유가 중요합니다.

TIP. “나는 ~해서 힘들었어”처럼 ‘나(이)를 주어로 하는 메시지’를 활용하면 상대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때문에 힘들어.” (X) → “나는 이런 상황이 어렵게 느껴져.” (O)



명령보다 요청하기

군에서 익숙한 명령형 말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TIP. “지금 당장 숙제해!” (X) → “이제 숙제를 시작하면 어떨까?” (O)

“이거 당장 치워라.” (X) → “정리하면 더 편하겠지?” (O)



2. 직장에서의 소통: 신뢰와 협력의 대화법

직장에서의 소통: 신뢰와 협력의 대화법

TIP. 동료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들으니 새로운 시각이 생기네요.” 같은 표현이 효과적입니다.

협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군에서 명령이 효과적이었다면, 직장에서는 협력적인 태도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TIP. “이거 이렇게 해.” (X) →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O)

“그건 아니야.” (X) →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O)

비언어적 소통도 중요하다

소통에서 말보다 중요한 것이 표정, 몸짓, 목소리 톤입니다.

TIP. 미소를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몸짓(고개 끄덕임, 열린 자세)을 유지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 톤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세요.

소통의 3요소 - 메라비언 법칙

① 말의 내용(7%) 말하는 내용 자체

② 목소리 톤(38%) 억양, 높낮이, 속도

③ 비언어적 표현(55%) 표정, 몸짓, 시선

3. 단계별 작은 실천으로 변화 시작하기

단계	실천 방법	기대 효과
1단계	하루 한 번 깊은 대화 시도하기(예: “오늘 하루 어땠어?”)	관계 깊이 형성
2단계	‘나’ 메시지 사용하기(예: “내가 걱정하는 것은...”)	비난 없는 감정 전달
3단계	적극적 경청 훈련(상대 말 요약해 주기)	이해의 깊이 증가
4단계	주 1회 소통 성찰 일기 쓰기	자기 인식 향상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 방식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배움의 과정임을 인정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안정지원 서비스나 의사소통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당신의 노력과 용기가 가정과 직장에서의 소통을 개선하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평생 학습자입니다. 지금 느끼는 어려움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

글쓴이 소개

- 작가, 코치, 소통 칼럼니스트 「김선희의 소통테라피」 연재 중
- 훈민에듀코칭 대표 | 공공기관 대상 교육 컨설팅 및 맞춤형 소통 강의 진행
-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줄 알았습니다.」, 「아이의 태도가 바뀌는 부모의 한마디」 저자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훈 지식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글 편집실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제4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고급) 42번 문항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본 국민 대표 회의는 이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회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지녀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1919	1925	1931	1935	1940	1945
(가)	(나)	(다)	(라)	(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박은식 대통령 취임	한인애국단 조직	한국국민당 창당	김구 주석 취임	8·15 광복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①번

국민대표회의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이후인 1923년에 개최되었으며, 외교 중심 임시 정부 활동의 한계가 드러나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 이와 관련한 역사 지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사진. 앞쪽 왼쪽부터 신익희, 안창호, 현순, 뒷줄 왼쪽부터 김철, 윤현진, 최창식, 이준숙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운동의 구심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망명정부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조소앙을 비롯해 당시의 거물급 독립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밤을 새우는 마라톤 회의 끝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합니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독립운동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독립

신문을 간행하여 국내외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알려 독립 정신을 일깨우고,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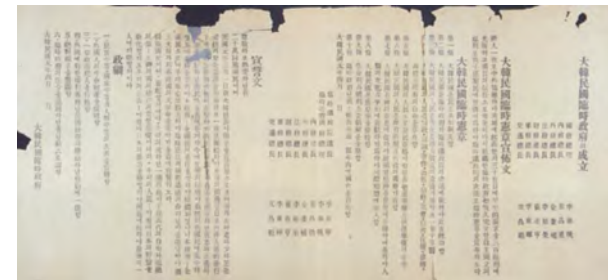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며 한국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록 국내에서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지만,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고 독립운동을 조직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개조파 대표 인물 안창호



창조파 대표 인물 신채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 문서, 대한민국 임시헌장 발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여 국가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이 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으로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규정하였습니다. 당시 임시헌장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이 일체 평등함'을 명시하며 평등권을 헌법의 중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즉 국민주권을 실현한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 문서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들로 이루어진 공화국의 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통을 명문화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적 유일성을 갖습니다.

이 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일제강점기하에서 독립운동의 이념적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광복 후 지난 80년 동안 9차례의 헌법 개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여전히 가슴을 웅장하고 뜨겁게 만듭니다.

국민대표회의와 독립운동 노선의 갈등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지만, 초창기부터 재정난과 지도층의 이념 차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 세력은 임시정부의 개혁과 독립운동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1923년 1월 3일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125명이 모여 독립운동의 조직과 노선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임시정부를 그대로 두자는 '고수파'와 기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개조파', 기존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독립운동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창조파'까지 3개의 진영이 형성되었습니다. 고수파는 하와이의 이승만으로부터 원격 지휘를 받는 기호세력 위주였고 개조파는 안창호, 김동삼, 여운형, 윤자영, 김철수 등 민족주의자와 일부 사회주의자 중심이었습니다. 창조파는 신채호, 박용만, 김만경, 문창범 등 사회주의자와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 국민대표회의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결렬되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 세력 간의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독립운동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민족운동 세력 간의 협력과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 중심의 강력한 지도체제로 개편되었고, 한국독립당 결성(1930) 및 한국광복군 창설(1940) 등의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45

당신의 완벽한 이직을 돕습니다!

기업과 인재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

헤드헌터와 서치펌

글 편집실

최근 방영된 SBS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배우 한지민이 연기한 헤드헌터 강지윤은 단순한 채용 중개인을 넘어, 기업과 인재를 잇는 핵심 인물로 활약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적합한 후보자를 기업에 연결하는 그의 모습은 헤드헌터라는 직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렇다면, 현실에서의 헤드헌터(Headhunter)와 서치펌(Search Firm)의 세계는 어떻게 운영될까?



사진 출처: SBS Play '나의 완벽한 비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헤드헌터

드라마에서 강지윤이 탄탄한 커리어를 기반으로 서치펌 대표가 되었듯, 현실에서도 헤드헌터는 보통 5~10년 이상 직무 경험을 쌓은 뒤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주요 서치펌 5곳의 데이터에 따르면, 신입 헤드헌터의 20%만이 경력 없이 바로 진입했으며, 나머지 80%는 다른 분야에서 평균 4.2년의 경력을 쌓은 후 전환했다. 헤드헌터들의 전공은 다양하지만, 경영학, 인사관리(HR), 심리학, 사회학 등의 전공자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공은 조직 행동, 인재 평가,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H E A D H U N T E R



구직자에게는 기회를, 기업에게는 최적의 인재를

드라마 속 강지윤은 냉철한 판단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인재를 선별하는데, 현실에서도 서치펌은 단순한 채용 대행이 아니라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전문 조직이다. 특히 중견·대기업, 외국계 기업, 스타트업 등이 핵심 인재를 영입할 때 주로 이용하며, 공개 채용과 달리 경력직 및 특수 분야 전문가를 직접 찾아 접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헤드헌터는 단순한 이력서 검토를 넘어 기업의 내부 사정과 업계 흐름까지 분석하며 최적의 후보자를 찾아 나선다. 경우에 따라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있는 '잠재적 후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러한 능동적인 역할 덕분에 기업은 적합

한 인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구직자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국내 헤드헌팅 시장은 1988년 올림픽 전후로 도입된 이후 IMF 위기 등을 거치며 급성장했다. 2023년 기준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하며, 대형 서치펌이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0~12%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IT·바이오·금융 등 특정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서치펌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맥킨지는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중국,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큰 헤드헌팅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드헌팅 업계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자격증은 없지만,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자격증과 교육 과정이 활용된다. 인사관리사(PHR, SPHR), 공인노무사, 심리상담사, 직업상담사, 산업별 전문 자격증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AI 기반 채용 매칭 도구 활용 능력,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이 새롭게 요구되면서 빅데이터 분석기사, SQL 자격증 등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드라마 속 강지윤은 매일같이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아침부터 클라이언트(기업 담당자)와 미팅을 갖고, 업계 동향을 분석하며, 유망한 후보자들과의 미팅을 잡는다. 실제 헤드헌터의 하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헤드헌터의 하루는?

인재 발굴 및 리서치

헤드헌터의 일과 중 약 40%는 잠재적 후보자 리서치와 발굴에 할애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검색, 소셜 미디어 분석, 네트워크 활용, 직접 접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클라이언트 상담 및 요구사항 파악

성공적인 매칭을 위해 헤드헌터는 기업의 문화, 업무 환경, 필요한 역량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단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 헤드헌터의 매칭 성공률이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인터뷰 및 평가

헤드헌터는 지원자의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리더십, 팀워크, 문화적 적합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균적으로 한 포지션당 5~10명의 후보자를 심층 인터뷰한다.

매칭 및 협상 지원

헤드헌터는 후보자의 연봉, 복리후생, 직무 범위 등에 대한 협상을 지원한다. 전문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의 경우 직접 채용보다 평균 10~15% 높은 연봉 협상 결과를 보였다.

사후 관리

채용 후에도 후보자가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헤드헌팅 업계는 법적 진입 장벽은 낮지만,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쌓기와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헤드헌터로 성장할 수 있다.

헤드헌터가 되려면?

네트워킹 능력

성공적인 헤드헌터는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상위 20% 헤드헌터들은 평균 3,000명 이상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

특정 산업과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은 헤드헌터의 성공률을 약 40%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별 트렌드, 주요 기업들의 문화,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재 평가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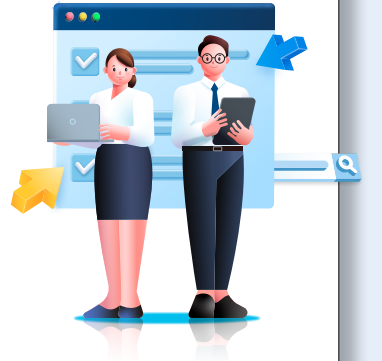
후보자의 역량, 잠재력, 문화 적합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헤드헌터는 기업과 후보자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므로, 뛰어난 협상 능력이 필요하다.

윤리적 태도

한국헤드헌팅협회의 윤리강령에 따르면, 헤드헌터는 비밀 유지, 이해 충돌 방지, 정확한 정보 제공 등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뢰성이 헤드헌터의 평판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인재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한지민이 연기한 강지윤은 단순한 채용 담당자가 아닌,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전문가로 그려진다. 이는 허구가 아니다.

기업의 성장과 개인의 커리어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AI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채용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헤드헌터의 역할도 단순한 채용 대행을 넘어 인재 컨설팅, 조직 전략 수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직업이지만, 기업과 직장인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헤드헌터. 언젠가 여러분도 이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헤드헌터의
임금 수준 및
직업 만족도



평균 연봉
3,056만 원

직업 만족도
72.8%

<자료: 워크넷(2021)>

헤드헌터에 대해
더 살펴보고 싶다면?



헤드헌터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는
큐넷 직업백과를 참고하세요.

MWC 2025로 읽는 IT 3가지 포커스

1월 CES를 시작으로 3월 초에는 MWC, 9월에는 IFA라는 IT 행사가 열린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가전제품박람회라는 이름의 약어로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전시회로 시작한 행사다.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까지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볼 수 있는 행사가 됐다. MWC는 (Mobile World Congress) 앞에 Mobile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처럼 통신회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행사다. 처음에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야기, 통신장비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CES처럼 다양한 장비와 제품을 볼 수 있는 행사가 됐다. 2025 MWC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알아보자.



샤오미 울트라



트리플드폰

01 모든 곳에 AI가 활용되다

매년 AI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올해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AI를 이야기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과 유럽의 통신사들이었다. 이미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샤오미는 물론 다소 인지도가 낮은 Honor(어너), ZTE와 같은 회사들 모두 구글의 Gemini를 탑재했다. 2024년 최초의 AI 스마트폰을 내세웠던 삼성의 갤럭시 S24가 구글 AI와의 연동을 내세웠던 것과 비슷한 행보다. 스마트폰이 보급화된 2010년 이후 전 세계 스마트폰이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로 양분되었듯 스마트폰과 연결된 AI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가 숙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할 때 통신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엿볼 수 있었던 건 도이치 텔레콤의 '퍼플렉시티 기본 탑재 AI 폰'이었다. 도이치 텔레콤은 이미 2024년 '앱 리스'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공개한 적이 있다.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필요 없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콘셉트였는데 이제 그 콘셉트가 퍼플렉시티를 활용함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02 중국 기업들의 무서운 약진

MWC에서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한 것은 중국 '화웨이'다. 화웨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거센 견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반도체 등의 주요 장비 수출이 금지되었고 심지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역시 사용하지 못하게 제재를 받았다. 그런데 오히려 모든 부품과 서비스들을 내재화시키며 지금까지 살아남아 더 크게 성장하려 하고 있다.

2025년 화웨이 부스에서 스타가 된건 '메이트 XT'란 이름의 3단 폴더블(트리플드) 스마트폰이다. 트리플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갤럭시 시 폴드는 한 번 접었다 펴는 데 비해 두 번 접고 펼 수 있다. 모두 펼친 상태에서는 10인치 태블릿 PC의 크기가 된다. 아직 삼성은 상용화하지 못한 폰을 이미 화웨이는 6개월 전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판매했고 이제 글로벌 판매를 시작했다.

샤오미 역시 무섭다. 2024년 첫 전기차 SU7을 전시한 데 이어 올해는 SU7 울트라라는 이름의 프리미엄급 전기차와 라이카와 협업한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를 전시했다. 두 제품 모두 핵심은 하나, '인공지능'. 샤오미의 수많은 제품들을 샤오미 생태계라 부르는데 이 생태계에 핵심은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다. 특히 2025년에는 국내 법인을 설립하며 자동차 판매업을 부수적으로 넣은 걸 보면 곧 우리나라 도로에서도 샤오미 전기차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03 국내 통신 3사의 전략

올해는 처음으로 엘지 유플러스가 MWC에 부스를 마련했다. 이로써 국내 통신 3사 모두 MWC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SKT는 AI, KT는 컬처, LG는 일상이다. SKT와 엘지는 각각 애스터, 익시온이란 이름의 AI Agent로 통신사의 개인화된 인공지능 비서를 강조했다. KT는 MS와의 협업을 통해 AI Agent를 발전시켜 나가며 이어 KT 위즈파크 경기장에도 실시간으로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자동 번역한 결과와 AI 휴먼을 전광판에 띄우는 등 다양한 문화와 일상에서 AI를 적용할 것을 이야기했다. 통신사 역시도 인공지능의 활용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까지의 AI가 많은 투자를 요하는 투자의 대상이었다면 2025년의 AI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AI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내려지는 시기다. 지금 나의 일상과는 조금 멀어 보여도 매일매일 IT 트렌드를 읽는 습관을 놓치지 말자. 잠깐 멈춘 사이에 자신의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게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

글 이မ်복

현) 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 인터렉티브박스 대표, 한국경제인협회 MWC 모더레이터,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유튜브 일상 IT 운영자

광복 80주년,
경포호에서 만난 독립의 숨결과 역사

강원 강릉

글 박선경 사진 권진혁

강릉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만으로 기억될 도시가 아니다.
이곳에는 독립을 향한 간절한 외침과 독립운동가들의 뜨거운 숨결이 서려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강릉의 역사적 장소를 걸으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본다.

강릉 3.1운동 기념공원에서 만나는 독립의 함성

여정의 시작은 강릉 3.1운동 기념공원이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강릉3.1독립만세운동기념탑이다. 탑 앞에 서니 106년 전, 이곳 강릉에서도 독립을 향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 닿는다.

강릉에서는 3월 말부터 만세 운동을 준비한 뒤, 장날이었던 4월 2일에 강릉장터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만세 시위가 펼쳐졌다. 수많은 청년과 시민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쳤고, 그 함성은 바람을 타고 바다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탑 왼편에는 다시 찾은 조국을 지키듯 강릉의 독립운동가들이 위풍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마주하며 결연한 의지를 떠올려 본다.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 친구였을 이들. 이름 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잠시 숙연해졌다.

탑 오른편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이 조형물은 단정한 표정과 살짝 쥔 주먹을 통해 여전히 아물지 않은 역사의 상처를 상기시킨다. 소녀의 시선을 따라 바라보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더욱 선명해진다.

GANGNEUNG-SI, GANGWON-DO



경포호 야경

낭만 가득 경포호, 시간의 흐름을 따라 걷다

강릉 3.1운동 기념공원을 나와 몇 걸음만 가면 경포호가 모습을 드러낸다. 예로부터 '다섯 개의 달이 뜨는 곳'이라 불린 호수. 하늘의 달, 호수에 비친 달, 바다에 비친 달, 술잔에 비친 달, 연인의 눈동자에 비친 달까지. 이름만으로도 낭만이 가득하다. 호수 둘레를 따라 조성된 '경포 둘레길 12km'를 천천히 걸었다. 잔잔한 물결이 햇빛을 반사하며 일렁이고,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산책하는 사람, 뛰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호수를 즐기고 있다. 경포호를 한 바퀴 돌면 자연스럽게 경포해변으로 이어진다. 드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바다는 한순간에 마음을 시원하게 만든다. 아침에는 잔잔한 파도가 부드럽게 해변을 어루만지고, 오후에는 힘차게 밀려와 역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해 질 녘 경포해변은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황홀한 풍경을 연출하고, 파도에 반사된 노을 빛이 잔잔한 감동을 더한다. 그 순간,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는 듯하다. 독립운동가들도 이곳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독립을 염원하지 않았을까. 나라를 되찾는 그날을 꿈꾸며,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우리는 그들이 바라던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 감사한 마음으로, 달을 품은 호수를 다시 한 번 내려다 본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문학 속에서 역사를 만나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니, 문득 다른 시대의 인물들이 떠올랐다. 조선 시대, 글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남매. 허균과 허난설헌이다. 강릉에는 이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이 있다. 공원 안의 허균·허난설헌 기념관은 목조 한식 기와로 지어진 단층 건물로, 허균과 허난설헌의 삶과 문학 세계를 담고 있다. 이곳이 자리한 '초당'이라는 지역명은 허균의 아버지 허엽의 호에서 유래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강릉의 대표 음식인 초당두부 역시 허엽과 관련이 있다. 허엽이 바닷물이라는 천연 간수로 두부를 만들었는데 이 두부가 바로 초당두부의 기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쓴 허균.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저항하다 역모 혐의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글은 수백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다. 조선 시대 여성으로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던 허난설헌. 그녀의 시는 국경을 넘어 중국과 일본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시대를 앞서간 남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문장들. 독립운동가들이 행동으로 싸웠던 것처럼, 이들도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섰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경포해변



경포호 벚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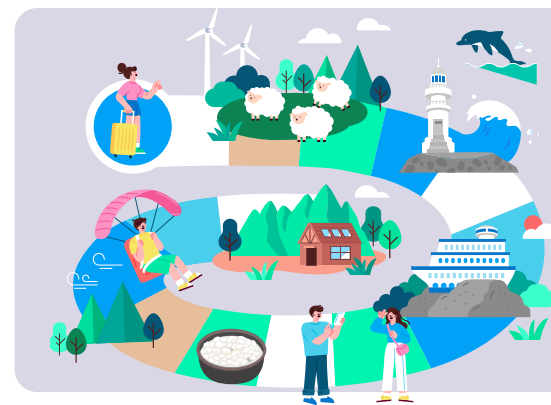


초당순두부 한 그릇, 짝찬 여행의 마무리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근처에는 강릉의 대표적인 맛집 거리 초당두부마을이 있다. 1986년, 초당마을에서 처음 두부 전문 식당이 문을 열었고 몽글몽글한 두부 맛은 순식간에 명성을 얻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움츠러든 몸을 녹이기에 따뜻한 순두부가 제격이다.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깊은 풍미가 입안을 감싼다. 바닷물로 간수를 맞춰 더욱 감칠맛 나는 초당두부는 시간이 지나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순두부와 짬뽕이 만난 순두부짬뽕, 심지어 두부 젤라토까지 등장하며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독립운동가들이 피난길에 먹던 강냉이죽이나 보리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한 끼. 우리는 그들의 희생 위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되새겨본다. 강릉에서의 하루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금 떠올리는 시간이었다. 4월이면 경포호와 경포해변은 벚꽃으로 뒤덮이며 강릉 벚꽃 축제의 중심지가 된다. 역사의 무게와 봄의 생기가 공존하는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 번 자문한다. '우리는 그들이 꿈꿨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파도는 밀려왔다가 사라져가고, 하늘은 어김없이 푸르렀다. ☁



초당두부



강릉 여정 포인트

- #강릉 3.1운동 기념공원 ① 강원 강릉시 저동 645
- #경포대 ② 강원 강릉시 경포로 365
-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③ 강원 강릉시 난설헌로193번길 1-16
- #초당두부마을 ④ 강원 강릉시 초당동 308-23



군에서 사회로의 전환,
든든한 마중물

경기북부 제대군인 지원센터

북한과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군부대가 밀집해 있어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수가 많다. 하지만 전역 후 사회로의 전환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에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전문적인 취업 상담과 맞춤형 전직 지원을 통해 제대군인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상담부터 교육, 기업 연계까지 든든한 마중물이 되어주는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를 만나보자.

Q.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11년 7월 20일 고양시에서 개소한 후, 2019년 6월 의정부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역 2번 출구 앞 센트럴타워 1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해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센터에는 취업상담팀(7명), 기업협력팀(3명), 교육행정팀(1명) 등 11명의 전문 직업상담사와 센터장, 행정직원 2명 등 총 14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도 전문 상담사를 1주일 단위로 순환 파견하여 고양 지역 제대군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무실 공간을 확장하여 최대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회의실, 상담실, AI 모의 면접실, 휴게실 등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1만 5천여 명의 제대군인이 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약 3천 명이 전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신규 가입한 제대군인은 2천여 명에 달해, 경기북부지역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Q.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A.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팀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개인별 취·창업 목표 설정 및 전직을 위한 1:1 전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채용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입사 지원서와 면접 준비에 필요한 클리닉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전직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2년 연속 취업률 1위의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기업협력팀은 지자체, 일자리 유관기관, 우수 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히 협업하고 있으며, 기업체와 제대군인을 연계할 수 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일자리 박람회 등을 개최해 제대군인이 직접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팀은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멘토·멘티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간담회를 열어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군부대 순회교육 및 군부대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전직지원 사업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Q.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만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A. 경기북부지역은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군부대가 밀집해 있고, 전역 예정 제대군인의 수가 많아 신규 등록자가 다른 센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상담과 전직지원금 지원 등의 업무가 많은 편이지만, 취업상담팀은 전문성과 친절함을 바탕으로 신규 등록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에는 약 6천여 개 기업이 있으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아 제대군인이 선호하는 유망기업이 크게 부족한 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협력팀은 지자체 및 일자리사업 유관기관, 우수 기업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MOU 체결 이후에도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가 확대되고, 실질적 채용으로 이어지는 문도 넓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교육행정팀은 2024년부터 포천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에 공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천시 예산을 활용해 제대군인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이 협력 사례를 경기북부 내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센터를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창업한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A. 2013년 전역한 한 예비역 소령은 센터의 취업 상담을 통해 시설관리소장으로 취업한 후 현재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멘토로 활동하며 후배들의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대위로 전역한 분은 전직 컨설팅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교육비와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지원받아 취업에 성공했으며, 이후 산림청과 함께하는 제대군인 힐링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후배들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여군 중사로 전역한 분은 담당상담사와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전직지원금을 활용해 육아와 병행 가능한 재택근무 단기간 일자리를 구했다가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를 지원받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시 간호학과에 편입하여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간호사로 취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전역 후 사회적응을 하는데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또 2024년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기북부지역 KD운송그룹 경기버스 등 7개 운송사를 대상으로 센터 교육장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으며, 현장에서 3명의 제대군인이 운적직으로 바로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파주적성산업단지(썬킵스, 포천시 썬담터 등의 기업은 센터의 추천으로 채용한 제대군인의 성실함에 매우 만족하며 제대군인 특별채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를 찾는 제대군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요?

A. 전역 전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및 제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1:1전담 상담서비스입니다. 회원 가입과 동시에 상담사가 배정되어 진로에 대한 상담을 일관되게 받을 수 있고, 타센터로 이관되어도 상담 및 지원 이력이 연계되어 개인 경력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전직지원금 지원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5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중 미취창업자, 전역예정자 등은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를 활용하여 전문자격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구직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센터에서 주관하는 취업 워크숍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클리닉, 채용 정보 검색 및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여 제대군인의 취업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대군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만족도와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Q. 올해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올해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내부적으로 취업지원팀, 기업협력팀, 교육행정팀 간 보다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여 직원 간 단합과 함께 업무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매주 팀장급 차담회, 매월 팀별 간담회, 분기별 전직원 간담회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업무 발전방안을 함께 강구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맨파워 강화로 연결돼 보다 효과적인 제대군인 전직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490개 협력대상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개별 유망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이 속한 산업단지까지 협력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포천시와의 협업사례를 관내 더 많은 지자체에 확대함으로써 제대군인 일자리와 교육훈련의 기회를 크게 늘리는 성공사례로 널리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Q.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제대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첫째, 제대군인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간의 군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밴 리더십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이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새출발하길 바랍니다. 둘째, 인생 2막을 위한 새로운 진로 탐색을 위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탐색을 한 후 제대군인지원센터 전문 상담사의 지원을 받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칫 자기 이해 없이 트렌디한 자격증만 준비하다가는 쉽게 지치실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는 제대군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전직을 도와드리기 위해 역량 있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담당 상담사에게 편히 문의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최대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신 제대군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대군인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위치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11층
 운영 09:00~18:00(주말, 공휴일 휴무)
 문의 1666-9279(군인친구)

전문 상담사가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센터,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경기북부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길은영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장

저는 올해 2월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현충시설정책과'에서 7개월간 근무했으며, 이후 서울에 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1년간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센터장으로 부임한 후,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현재도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군무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특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일이 매우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며, 센터에서 전문 상담사들이 최선을 다해 전직 지원을 돕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센터장으로서 상담사들이 더욱 신명 나게 일하며 제대군인분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One Point Up"을 목표로 삼아, 제도적 개선과 운영 방식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 N T E R V I E W

새싹처럼 돌아나는 봄빛 서재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책



원씽(The One Thing)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 | 비즈니스북스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단순한 진리는 바로 '원씽'(The One Thing),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파고 들라고 말한다. 저자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전승환 | 북로망스

저자가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150여 편의 '인생 문장들'을 소개하며 독자와 함께 이야기 나눈다. 책을 읽는 동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해답을 찾아나가게 된다.

달려구트 꿈백화점

이미예 | 팩토리나인

잠들어야만 입장 가능한 꿈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비밀스럽고도 기묘하며 가슴 뭉클한 판타지 소설이다. 꿈을 사고 파는 가상의 상점을 배경으로, 현실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상상력을 선사한다.

한 달에 한 가지, 지구 사랑 실천_의류 소비 줄이기

UN 지속 가능한 의류연함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는 의류 산업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합니다. 패스트패션 소비를 줄이고, 기존 옷을 재활용하는 알뜰하고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침 봄을 맞아 옷장 정리를 하면서 내가 가진 옷을 파악해 어떤 옷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쇼핑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상태가 좋는데 나에게 맞지 않다면 기부하거나 중고 거래로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월에는 옷장 다이어트로 지구 사랑을 실천해 볼까요?



독자퀴즈

QUIZ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직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모바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는데, 이 서비스는 무엇일까?(18~19p 커리어 맵 참고)

- ① 잡아라 잡 서비스 ② 고용 24 서비스
- ③ 모바일 잡케어 서비스 ④ 내 손안에 잡 서비스

※ 4월 20일(일)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 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 (당첨 결과 문자 통지)


2025년 3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박경석(충남 천안), 성덕용(경기 안산)
안상현(경기 양주), 이현주(대전 중구)
정의성(경북 구미)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3월호 정답: ① 예비창업패키지

2025년 4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

이준식 대한민국 육군 중장 
1900. 2. 18.~1966. 4. 5.

항일 독립운동에 이어 6·25전쟁에도 참전하여 한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진정한 영웅

항일투쟁에 전념하며 광복을 이끈 독립운동가이자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쟁영웅인 이준식 중장(전투당시 계급: 준장)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10일 제3사단장에 임명되어 전투를 지휘했다. 특히 포항으로 진출을 노리던 북한군 제5사단에 맞서 동해안 영덕지구에서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에 걸친 공방전 끝에 저지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에 방어선을 형성하여 반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준식 육군 중장의 발자취

- 1929년 국민부군 총사령관으로 임명, 무장 항일투쟁 전개
- 1940년 9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고급참모에 임명
- 1949년 1월 육군 대령으로 임관, 6월 제7사단 초대 사단장으로 취임
- 1954년 7월 태극무공훈장, 1962년 3월 건국훈장 독립장 수훈
- 1966년 4월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